

평생 '신행' 으로 살아온 '우바이' ...

이정옥 (대원성·연꽃모임 회장)



이정옥 회장은 ... 1944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났다. 1967년 조계종 전 종정 고암 스님으로부터 범명 대원성을 받았으며, 1968년 일타 스님으로부터 보살계를 받았다. 1965년 대한불교청년회(대각사)에 입회했고, 청년회에서 만난 성원거사와 1969년 결혼했다. 1977년 부산불교 신행단체인 '연꽃모임'을 창립하고 초대 회장에 취임했다. 10년 후 회장직을 놓았다가 2013년부터 다시 회장직을 맡았다.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부산 소림사 신도회장을 역임했다. 2003년 소림청심장학회를 설립했으며, 2008년 공림공양회를 창립해 회장직을 맡고 있다. 1988년 부산불교 포교대상을 수상했고, 1994년 흥법대상을 받았다. 사진=박재원 기자 wanhollo@hyunbul.com

기도, 그것은 마음을 가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 일 것이다. 간절히 바라는 그 일은 눈으로 볼 수도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믿음'이라는 세계이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세계에서 산다는 것이 곧 '신행' 일 것이다. 또한 그 신행의 시작과 끝이 불법(佛法)에 근거하고, 평생의 삶이 됐다면 그것이 다름 아닌 '성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평생을 삼보에 귀의하고 신행을 살아온 우바이가 있다. 부산 연꽃모임 이정옥(범명·대원성) 회장이자.

'연꽃모임' 발족, 초대 회장
새벽 4시. 올 해 70세인 이 회장은 어김없이 예불을 모시고 기도를 한다. 불·법·승 삼보는 물론 공업의 중생을 생각하는 간절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 1976년 겨울, 이 회장은 주변 사람들을 위한 백일기도를 시작했다. "자신만을 위한 기도는 욕심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남을 위해 기도할 때 자신이 채워진다는 것을 알았죠."

남편이 진주로 전근을 가게 되어 이 회장은 남편과 1년 동안 따로 살게 되었다. 홀로 남겨진 이 회장은 '주변'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인연의 소중함을 알게 됐다. 이 회장은 원근의 친척들과 자신이 알고 지내는 이웃 사람들을 위해 하나하나 축원문을 만들어 새벽마다 기도를 올렸다. 아픈 사람은 아프지 않기를, 힘든 사람은 힘들지 않기를 축원했다.

그렇게 백일기도를 마친 이 회장은 1977년 1월 22일, 백일기도를 회향하면서 축원했던 이웃 30여 명을 집으로 초대해 조촐한 대중공양을 열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의 취지와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불법(佛法)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대부분 불자가 아니었던 그들은 이 회장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이 회장은 불법과 인연을 맺지 못한 그들이 안타까웠다. 그들과 불법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 진 이 회장은 그들에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나서 함께 절에도 가고 법문도 듣자고 제안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모임이 '연꽃모임'이다. 이 회장과 '연꽃모임' 회원들은 일타 스님과 고암 스님을 지도법사로 모시고 해인사, 송광사, 경국사 등을 순례했다. 모임이 거듭되면서 회원들은 불법과 가까워지게 됐다. 이 회장의 신행은 불법을 모르던 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고, '연꽃모임'은 많은 신행단체의 탄생을 이끌었다.

"그 때까지만 해도 부산에 '연꽃모임' 같은 신행 모임이 하나 정도 밖에 없었어요. 연꽃모임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면서 많은 신행 모임 단체들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죠."

신행의 시작

이 회장은 '연꽃모임'의 초대 회장이 되었고, 부산시 급정구 장전동에 위치한 이 회장의 집은 작은 법당이 되었다. 도반들이 모여서 불법을 얘기하고, 서로의 주변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많은 불사가 그곳에서 시작됐다.

우선 가난한 이웃들을 돕기 시작했다. 불우한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을 돕기 위해 '보현봉사회'와 '장학회'가 만들어졌다.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모습을 볼 때 다시 한 번 '나'를 돌아보게 되고

모임을 만든 보람을 느꼈어요."

20년째 운영되고 있는 '보현봉사회'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과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찾아가고, 교도소 재소자들을 위한 위문법회를 열기도 했다. 또한 순수하게 회원들의 모금만으로 조성된 장학회는 어려운 형편의 청소년들을 찾아 돕고 있다.

또한 이 회장은 1980년 부산 소림사 신도회 부회장을 거쳐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신도회장직을 수행하며 한결 같은 보시행을 펼친다. 소림청심장학회를 만들어 결식 청소년들을 위해 금정중학교에 매달 후원금을 보시하고, 노숙인 쉼터 '부산 보현의 집'에서 자원봉사 활동도 꾸준히 이어간다.

그 밖에도 이 회장은 '연꽃모임'을 통해 많은 일을 했다. 합창단을 결성한 일도 그 당시엔 생소하고 획기적인 일이었다. 합창단의 결성은 찬불가를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불교를 생활 속으로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았다. 그 후로 많은 합

"자신만을 위한 기도는 욕심, 타인 위해 기도하면 '나' 채워져"
1977년 부산서 '연꽃모임' 조직
신행단체 새 모델 제시, 봄 일으켜
합창단 창단, 단체복 유행시켜
불우이웃돕기, 재소자 위문법회 등
'보현봉사회' 조직 20여 년 봉사
불교, 생활 속으로 끌어들이고
많은 주변 사람들을 '불자'로

창단이 창단됐다. 또한 이 회장은 모임의 결속을 다지고 모임의 홍보를 위해 '연꽃모임'에 단체복을 도입했다. 단체복 역시 많은 단체들이 도입하는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이 회장과 '연꽃모임'의 가장 큰 업적은 아마도 전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연꽃모임의 회원이 128명까지 늘어난 것이 첫 번째 성과라 할 수 있는데, 특히 이 회장의 개인적인 전법 포교가 많은 역할을 했다. 무종교인은 물론이고, 타종교인들까지 이 회장의 호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불연의 시작... <법화경>

"<법화경>이었어요."
이 같은 이 회장의 신심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그 불심의 시원은 어디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가정, 부친이었다. 이 회장은 20대 초반에 아버지로부터 <법화경>을 받게 된다. 이 회장의 부친은 대각사 근처에서 한의원을 열고 있었다. 많은 스님들이 부친의 의원을 찾았고, 부친은 그로 인해 불교에 귀의하

게 됐다. 불심으로 살아온 이 회장의 부친이 어느 날 이 회장이 <법화경>을 권한 것이다. 이 회장이 처음 부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은 <법화경>이다. 이 회장은 단 며칠 만에 <법화경>을 외워버렸다.

처음 경전을 통해 불법을 접한 이 회장은 며칠 후 통도사 백운암으로 3일 기도를 떠나서 이웃의 할머니들을 따라가게 된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얼음물에 몸을 씻고 기도를 하는 할머니들을 보면서 이 회장은 발심을 하게 된다.

집에 돌아온 이 회장은 백일기도를 발원하고 부친을 따라 대각사에 다니게 된다. 이 회장은 남편을 그때 대각사에서 만나게 된다. 이 회장의 남편은 대각사 청년회 회원이었다. 당시 지금의 남편으로부터 청년회 가입을 권유받고 이 회장은 청년회 활동을 시작했다. 얼마 후 해인사 수련회에서 지금의 남편과 함께 고암 스님으로부터 법명을 받았고, 몇 년 뒤에 결혼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회장의 불교와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됐다. 불교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서 이 회장의 불심은 남달랐다. 이 회장의 불심은 불교를 아끼고 자부심을 키우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이 회장은 우선 불자들이 뜻도 모르면서 불교를 이야기하고 자부심 없이 불자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못내 못마땅했다. 경전을 독경하면서도 그 뜻을 모르고, 타종교인이 불교에 대해 물어올 때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싫었다. 그래서 이 회장은 절에서 가장 많이 독경하는 <금강경>을 한글로 사경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 회장은 사경을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경본을 법보시해 오고 있다.

'나'에서 그치지 않는 불심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따라 절에 가기를 좋아했던 이 회장은 멀리서 스님의 옷자락만 보이도 반가웠다. 가끔 큰 절에 가서 긴 가사 장삼을 수한 스님들이 법당을 가득 메우고 예불을 모시는 것을 볼 때면 무한한 감동을 느꼈다. 너무나 거룩해 보여 곧장 스님이 되고 싶었다고 한다. 신비스러운 정도의 이 회장의 불심은 '연꽃모임'으로 신행 단체의 모델을 제시하며 생활불교의 장을 열었고, 그 생활불교는 신행의 저변을 넓혔다. 그렇게 이 회장은 삶과 신행은 하나였고, 삶이 된 신행은 누군가에게 '갈'이 될 만한 것이었다.

이 회장은 평소 자신의 신행을 그때그때 기록으로 남겼다. 신행생활을 통해 얻어진 귀한 진리들을 혼자만의 것으로 지나치기엔 아깝다고 생각했다. 이 회장은 늘 깨어있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 다른 말이 아니었다. 무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었다. 불자로서의 지극히 당연하고 병행한 노력인 것이라 하겠다.

이 회장은 생활 속에서 깨달은 값진 체험들을 많은 불자들을 위해 글로 남기기 시작했다. 그 글들은 많은 불자들이 좀 더 빨리 불법에 다가가기 바라라는 마음에서 출발한 것으로, 그 취지와 의미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작은 경전으로 불려도 좋을 것이다.

이 회장은 그의 글에서 "오늘은 부산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 시간에 초대되어 방송을 하고 있다. 현대불교신문에 '바라달 일기'를 연재한 것이 인연이 되어 방송까지 나가게 됐다. 신문에 연재를 시작할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대원문재현 선사님의 68번째 저서 출간!

신간! 바로보인 전문염송 제26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전문염송(禪辨妙頌), 전 30권중 26권 출간! 고산, 조산, 남원, 동안선사 등의 공안이 실려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바로보인 유마경

모든 이치를 통달해 변재에 자유자재했던 유마거사의, 부처님 당대를 휩쓸었던 활구법문이다. 읽는 것만으로도 변재가 트인다는 유마경,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유마거사의 의중을 속속들이 드러낸 번역과 <대원선사 토끼뽕>로 이 시대의 최상승법을 제창하였다.

바른 불자가 됩시다
바른 신앙과 바른 수행의 길잡이!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 031-534-3373

명품승복(가사전문)

명품 승복을 경영하고 있는 저는 깊은 사찰 기도터에서 4박5일 기도중 큰스님께서 출가사를 수하시고 제게 상을주는 현상을 선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승복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발명특허 3땀 가사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스님들께 뛰어난 디자인과 월등히 저렴한 가격으로 가사를 드릴 수 있기에 지면을 통하여 인사드립니다.

반 수가사 (3땀 가사) 특징

- 1 일반 기계가사와 달리 반 수가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콩(구슬)이 지나갈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 2 일반 기계가사와 달리 모양이 전통 삼땀으로 가사를 지었습니다.
- 3 수가사 보다 가격이 월등히 저렴하며, 고르게 삼땀이 되어 있어 디자인 모양으로도 뛰어 납니다.

명품승복 010-3258-3568 / 031)844-5233
의정부시 의정부동 160번지 제일시장 丙 라동 23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동상 / 특허청장상 수상 CE 인증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근우테크주**
전동운반차의 선구자!

사찰 사용 모습

경사지 공방 재수 운반, 고소 연동 설치, 전지브레이크 장착으로 내리막도 안전, 오르막 오를 시 수행유지

※ 종단 / 교구 / 지역 / 신도회별 단체사담

문의전화 : 010-7518-7854, (053)801-7897, 7895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공단로 82-6(검단동 887-160번지) www.kw-tec.co.kr